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 23:37-39)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이 탄식은 실로 마음속 깊은 고통의 신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평화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루살렘 성의 의미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마지막 즈음에 이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너무나 비통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37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차라리 이방 사람들이 죽였다면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외식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38절).

예루살렘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고 사람들의 더러운 욕망이 채워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39절).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든 모두 다 예수님을 보게 될 터인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로서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어 돌아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셨습니다(마 24:2).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과 삶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삶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것은 곧 무너질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그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견고한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화와 저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 오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리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는 고백과 함께 하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O Jerusalem, Jerusalem!

(Matt. 23:37-39)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O Jerusalem, Jerusalem!' Jesus' sighed with a moan of pain in his deepest heart. Jerusalem is a castle that was erected by King David in order that God could directly put his name on it. Jerusalem means God's presence and is the place where God and His people share peace. Even in the new Testament, its meaning never becomes weak.

In near the end of his public life, Jesus visited Jerusalem. By calling Jerusalem, He was grieving too much. Because it became very corrupt.

"O Jerusalem, Jerusalem, you who kill the prophets and stone those sent you" (v. 37).

The holy castle, Jerusalem became the tombs of prophets. Who killed God's prophets? If they killed the Gentiles, it would not be so devastating.

But those who killed prophets were the scribes, the Pharisees, and priests who thought their belief was better than everyone else.

Owing to their vested rights, they killed God's prophets at random, because of the hypocrisy of which was absorbed in their legalism.

"Look,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v. 38).

Jerusalem castle was no longer God's house but became a den of thieves and place that was filled with human's dirty desires.

"For I tell you, you will not see me again until you s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v. 39).

Now in two days, Jesus would be crucified on the cross, and would be seen again. And then, when the time came, all people in the world could see Jesus Christ whether they would like to see him or not. While, some

who were saved as God's people, others who were in fear, could hear the Lord's people sing so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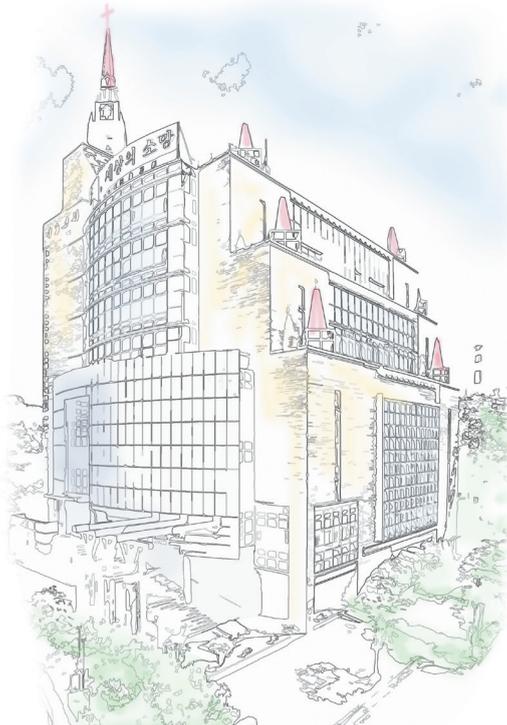
Jesus left the temple, he was walking away, and said that not one stone there would be left to one another; everyone would be thrown down (Matt 23:2).

Paul, the Apostle calls our body and life the temple. However, in order that our body and life become the temple, God's presence must be among us. If not, no matter how great it is, it is just like a Babel tower that will collapse right away. Even though its appearance looks shabby, if God's presence is abundant, that place is God's temple.

My beloved Christians,

If there is a man who is a hypocrite and lead a religious life in order to be respected and praised by people, he could not avoid the Lord's woe and curse.

By receiving the word of God's warning and with 'the faith of Coram Deo' looking at Jesus Christ, who was crucified on the cross for me with the confession "Praise the Lord, our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enjoying God's blessing and gr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

제 14대 장로 선거

-오늘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오늘 찬양예배 후 제 14대 장로 10명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열린다. 장로는 공동의회 투표인 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투표권 및 장로후보명단은 1부 예배 후부터 찬양예배 전까지 2층 로비에서 교구 별로 선거인명부 대조 후 배부할 예정이다.

본 교회의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세례, 입교, 개종)은 모두 공동의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홍해작전 준비 만전을 기하다

주제 :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6월6일(토)~25일(목) / 새벽 5시~6시



박노철 담임목사

2015 홍해작전

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대상 16:10)
 기간 2015년 6월 6일(토) ~ 6월 25일(목), 05:00~06:00
 강사 박노철 담임목사

행동지침

- 1) 온 가족, 온 다락방이 함께 새벽을 깨우자.
- 2) 다음세대와 함께 기도하여 홍해를 가르자.
- 3)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부흥을 이루자.

홍해작전 기도제목

1.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흥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2.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남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4. 우리에게 다음세대를 맡겨주신 주님!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5.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6.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7.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새벽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홍해작전 준비가 매주 오후 2시 30분 609호에서 홍해작전 참모회의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5년 홍해작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이다. 기간은 6월 6일(토)부터 6월 25일(목)까지이며, 시간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이다.

홍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

키시고, 홍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제4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

주제 : 한국장로교회 안교단 다체제와 한국교회연합
 5월 18일 (월) 오후2시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원로목사)은 최근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발의, 추진하고 있는 장로교 안교단 다체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분열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로교 안교단 다체제와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주제로 47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69)

(문 169)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요8:11).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세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했으니(롬 13:4) 성경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답) 사도는 롬13:4에서 인간 정부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의한 자에게 처벌을 가할 권리를 정부에 부여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형제도를 성경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실은 모세 율법(신22:22-24)에서는 간음한 사람을 남녀 둘 다 죽이거나 돌로 쳐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율법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과 용서와 사랑을 선포한 예수님의 교훈 사이에서 예수를 책잡으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적 계략이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했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야 했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유대인들도 로마정부에 세금을 내라고 가르치셨으니(마22:21) 로마법대로 그 여인을 처치해야 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공격하는 이들의 말과 같은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잡히고도 죄를 부인하는 여인을 옹호하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하심으로 그 여자가 사형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죄'라는 단어 속에는 사형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막14:64에서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자로 정죄하고'라는 말씀이 이를 분명케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레20:10에서 음부와 간부를 둘 다 죽이라 했으나(신22:24) 요 8장에서 말한 이 사건에서는 남자 없이 여인만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으므로 이는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성문 어귀에 앉은 장로들에게 끌고 가 공적재판을 받도록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데 재판관이 아닌 나사렛 예수께 끌고 온 것부터가 잘못된 의도가 있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눅 12:14에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공격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됨을 알고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땀을 흘려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율법아래서 죄인이며 우리 모두는 사형을 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무언중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역 자주권을 인정하시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과 개인들의 것이 다르다는 것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형제도는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모세율법을 수정하시려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 주시듯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서울성경대학·열린프로그램을 마치며

가장 약한 순간을 위로하며



오지열 장로 (10교구)

영성케어스쿨을 열린프로그램에 개설하여 8주 과정으로 잘 마치게 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년여의 시간을 들였지만, 과연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성도들의 호응이 있었을까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모든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열화와 같은 성원은 아닐지라도 꾸준히 강의를 듣는 성도들이 20여명 내외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강의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과 강의를 맡아 주신 분들과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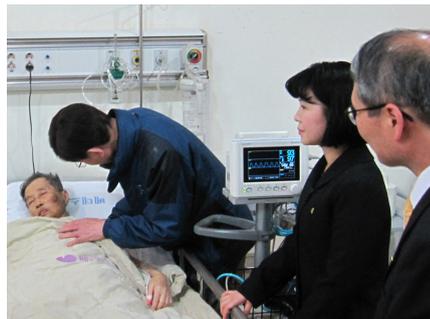
특히 마지막 종강과 함께 하인선 장로님의 베데스다병원에서의 실습은 참으로 많은 것을 얻게 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프로그램은 더욱 알찬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을 바랍니다.

이제 과정을 마친 1기생들은 모두 영성케어부에 속하여, 믿음팀(중증 환우팀), 소망팀(호스피스팀), 사랑팀(사별가족팀)으로 각기 소속되어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라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성도들 중에 물질로, 기도로 말없이 후원해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내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교회 내의 성도들을 중심으

로 사역하겠지만, 점점 넓혀서 교회 밖의 많은 죽어 가는 영혼의 구원에 매달려 볼 작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 우리에게 병마가 닥칠지 알 수 없고, 요즘 세상에는 국민의 절반이 암환자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약할 때란 병이 들어 남의 힘을 빌어야만 살 수 있을 때이고, 말 할 수 없는 고통 즉, 사별한 가족은 이별로 스며드는 슬픔은 가늘 길이 없겠지요. 더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붙잡고 외롭고 고독함과 싸우는 환우들은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여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저들과 나눌 수는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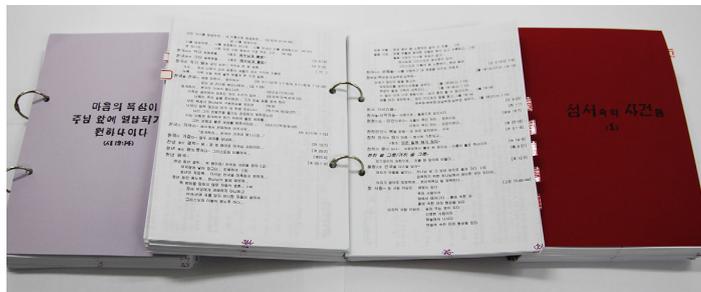
다시 한번 성도들의 지극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신앙의 선배

주의 울레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순례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성경필사를 무려 여덟 번이나 하신 신앙의 선배 정정희 권사님을 만나보았다. 정신과 가치는 상실되고 현상만 난무한 이 시대에 성경 필사가 말로 우리는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경건의 도구가 될 것이다. 성경 읽는 아빠, 성경 쓰는 엄마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무언의 신앙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정정희 권사님이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성경 필사를 거듭하며 터득한 필사의 노하우 등을 함께 나누기로 한다. (편집부)



이 필사를 기필코 마치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의 간구를 드린다면 분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5. 신앙의 후배, 다음 세대에 주고 싶은 말씀은?

꼭 한 번은 필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필사의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66권에서 항상 만날 수 있었으며,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모든 말씀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말씀들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나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 목상을 권하고 또 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 다. 이제 66권의 말씀의 깊은 바다에 ‘말씀 사모’의 그물을 내려 말씀을 낚아서 서울교회의 베드로 같은 어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가 가야만 또 한 세대가 올 수 있음을 전 도서는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박노철 담임목사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편안함과 시원케하는 말씀이 디딤돌들이 되어 서울교회가 부디 힘 있는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 해봅니다.



정정희 권사 (7교구)

1. 필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몇 번의 통독에도 말씀을 소홀히 읽고 넘어가기가 고쳐지지를 않아 성경을 정직하게 정독을 하고자 필사를 95년경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쓸 때 받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읽을 때에는 어머니의 품을 언제나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편안함과 자녀됨의 기쁨이 늘 함께 하였으며, 필사 때의 은혜는 웬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으며 순종하는 모습인 것 같아 나 자신의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기뻐했습니다.

3. 필사를 거듭하며 가장 잊지 못할 일은 무엇 입니까?

모두의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66권 안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의 울레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음”(시 119:54)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디쯤까지는 들음에서 깨닫고

또 은혜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좀 더 장성하면 자기의 신앙지킴은 분명 말씀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사하며 메모하여 두었던 66권 속의 사연들을 ‘하나님 말씀 Index’로 만들면서 또 다른 놀라운 감격의 체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 “말씀 인덱스”는 어눌하여져 가는 저에게 하늘나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의 지침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4. 성경 필사는 어떻게 하여야 효과적인지?

66권을 필사로 옮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작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아버지께 부탁해 보세요, 분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필사의 첫 번째 구할 것은 “66권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구한다면 시119:103 (요절 꼭 찾아 읽어 주세요) 말씀을 주시어, 펼쳐려 단 말씀을 “기쁨으로 즐기며 감격”으로 필사를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필사로 은혜의 강을 건너기 시작됨과 동시에 나만의 하나님을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사의 걸림돌은 몸의 부분 통증으로 (어깨/목/팔꿈치/손 등등) 대부분 중단하시나 이 또한 “나는

